

새싹 편지

2010. 4월호



Woosong News

- 중간고사 Story
- 2학년의 현장 견학
- 새내기 페스티벌 & CF대회
- 유아교육과 M.T

Our Story

- 10학번들의 외침
- 강재희 교수님의 한 말씀



중간고사 Story

유아교육과 1, 2학년들의 중간고사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치러졌습니다. 1학년들은 입학 후 처음 치르는 시험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고등학교와는 다른 서술형 시험에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2학년은 밀려드는 과제들 틈에서도 도서관, 강의실 등을 오가며 전공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중간고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하루 치러지는 시험에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시험을 치른 유아교육과 학생들. 1학년들에게는 대학교의 시험방식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이번 학기 남은 기말고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학년의 현장 견학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놀이지도와 유아교육과정 수업의 일환으로 KB 어린이집과 전



원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인 KB 어린이집을 방문해 만1세~만4세들의 수업환경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구 교재들을 보며 자신의 3년 후를 생각했습니다. 이후 전원유치원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유치원의 건물이 6개동으로 분리되어 15학급이 운영되며, 도서관, 사육장, 실외 도서관, 강당 등의 시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만5세 학급을 방문해 다른 연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며 좋은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8년된 전원유치원의 원장선생님의 철학과 기관의 특성 등 여러 정보들을 들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새내기 페스티벌&CF대회

4월 2일 금요일 우송예술회관에서 16대 총학생회 날파람이 주최한 새내기들의, 새내기들에 의한,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끼 많은 우송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근 유행하는 댄스곡, 호소력 짙은 발라드, 직접 작사·작곡한 자작곡 등 다양한 볼거리를 주었고 과마다 함께 모여 자신의 학과나



다른 학과들의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보기 좋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 미처 적응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예선을 치루고 촉박한 시간과 환경들이었지만 새내기들이 맘 흘려 연습한 성과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새내기 페스티벌과 더불어 시행된 I♡우송 CF 경진대회, I♡우송 금연 UCC 경진대회. 여기서도 우송인들의 빛나는 창의력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는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지만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즐기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한마디

[새내기 페스티벌을 본 소감 - 박혜령]



새내기 페스티벌을 봤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참여해서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남자가 노래 불러주면서 프러포즈하는 공연이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노래도 잘 불러서 인상 깊었습니다. 공연이 밤까지 연속되고 마지막에는 좋아하는 가수가 오지 않아서 지루했었지만 다른 애들은 많이 좋아해서 부듯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처럼 유명 인기가수를 불렀으면 더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M.T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목소리 테마파크'에서 유아교육과 M.T



가 있었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처음에는 선후배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만 맴돌았지만 곧 M.T 프로그램이 진전됨에 따라 그 어

색함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명랑운동회, 리더십 강의 그리고 모두에게 감



동을 남겨준 캠프파이어가 끝난 후 가진 친목다짐시간에서는 선후배간에 어색함 없이 서로 친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생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유아교육과지만 선후배간의 친목만큼은 어느 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이번 엠티는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돈독한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M.T를 다녀온 소감 - 김수정]



처음 엠티에다 1학년대표라는 책임감까지 더해져 긴장이 많이 됐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기나 선배들과의 접촉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쉬웠고 친목다짐시간은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목소리 테마파크는 미래에 아이들과 함께 올 캠프를 체험한 것 같아 알맞게 고른 것 같고 마지막 캠프파이어에서 160여명이 안았던 순간 바로 나의 왼쪽 심장을 상대의 오른쪽 가슴에 남긴 그 행동이 감동적이었습니다.

Our Story



10학번들의 외침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소감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론을 배우면서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자내는 것도 재미있다 -윤경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혜인

중·고등학생 교육보다 평생단계의 첫 단계를 가르치는 것이어서 왠지 더 중한 의무를 맡는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진다 -송희진

우송대 유아교육과에 온 것을 정말 절대 후회하지 않고 유아교육과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럽고 아이들도 평소에 좋아해 내 적성에 딱 맞는 곳에 온 것 같아 100%만족 중이다 -강교육

아직은 이론수업이 중심이라 별로 재미없지만 2학년 때부터 실습 위주로 하다보면 더 즐거울 것 같다. 또 평소 좋아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송하나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재밌다 -김소담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해 자세하고 진지하게 배우면서 가벼운 학문이 아니란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김연수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유아교육과에 오게 됐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었던 것 같다 -김자영

어느 교육과 보다도 유아교육과에 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배울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 -강지혜

내가 유치원선생님이 되고 싶어 유아교육과에 온 만큼 하루하루 수업열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나의 꿈이 확실해지는 것 같다. 졸업을 하고 빨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양희선

우송대학교 안에서 유아교육과가 가장 자부심 있는 과로 느껴져서 그런지 더 과 활동에 임하게 되는 것 같고 유아영아들에 대해 배워가면서 잘 배운 교사라고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좀 더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다혜

재미도 있고 아이들을 알아가는 감동도 있다. 내 인생을 이곳에서부터 설계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 된다 -김민형



강재희 교수님의 한 말씀



Q 작년에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A 일단 학생들이 순수하고 가능성이 많아서 좋았고 또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해서 더 좋아요~

Q 교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생상은 무엇인가요?

A 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대학 생활의 추억을 잘 만드는 학생이 가장 이상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원래 중학교 때 부터 애들이 줄면 앞에 나가서 깨우는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유머감각이 타고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으니 재밌게 느끼는 거겠지 뭐 어떤 비결이 있다고 해서 재밌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Q 교수님께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하신 이유와 굳이 교수님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유아교육과는 여러분들처럼 아이들이 좋고 또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된 이유는 유아교육과가 전공이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의도 재밌구요^^

Q 교수님께서 새터민, 장애통합 같은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새터민은 북한에서 온 유아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었거든요. 또 장애통합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때 장애통합시설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양한 아이들과 잘 지내야 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음, 먼저 대학시절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우송대 유아교육과가 생길지 얼마 안됐지만 나중에 우송대 유아교육과를 빛낼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친구들끼리 또는 선, 후배 사이에 좋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상식

성격에 따른 육아법 I

너무 순한 아이

아이가 너무 순해서 혹시 커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살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커서도 그런 성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성적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것 뿐입니다.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다만, 다른 아이의 행동에 스스로 방어 할 수 없어 힘들어 한다면 교사나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공격적인 아이

친구들을 때리고 미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찾아서 줄여주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좋은 행동은 격려와 칭찬을 하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화를 내지 말고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처해야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사나 부모가 평소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공격적인 행동은 좌절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격려와 칭찬을 충분히 해주세요.

출처 : 미소담은재활연구소

십자말 퀴즈

가로 열쇠

- ① 사람이나 사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 ② 출생에서 1개월까지의 시기로 젖꼭지가 입에 닿으면 반사적으로 빨기 행동을 함
- ③ 실제적인 발달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차이
- ④ 영아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
- ⑤ 심리성이론을 제시한 학자
- ⑥ 유아의 발달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 것
- ⑦ 이 특성에 의해 뇌의 어떤 영역이 손상된 경우 다른 영역에서 그 기능을 떠맡아 수행함

세로 열쇠

- ① 1세반에서 3세의시기로 항문에서 쾌락을 얻는 시기
- ②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형태
- ③ 듀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아교육의 개념 중 하나
- ④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 ⑤ 간 기능이 불완전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피부가 노란색을 띠
- ⑥ Steiner가 창시하였으며 자연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중요시 함
- ⑦ 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새로운 특성, 단계적이다

①		①							②	
				③		④				
②										④
			⑤			⑤				
③		⑥								
						⑦				
				⑥						
		⑦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http://www.cyworld.com/77-5-22-4-8-6>
- * 안선경 : <http://www.cyworld.com/01020434837>
- * 이예지 : <http://www.cyworld.com/ukyo->
- * 김소담 : <http://www.cyworld.com/ekath7962>
- * 송하나 : <http://www.cyworld.com/01066014827>